코스피 2500선 터치… 外人·기관 '상승', 개인 '하락' 베팅

〈장중 2521.86〉

코스피지수, 전일比 3.46p 올라
外人, 3거래일 연속 매수세 지속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기업 주가↓
CES서 엔비디아 CEO 발언 영향

코스피가 전 거래일(2488.64)보다 3.46포인트(0.14%) 오른 2492.10에 장을 마친 7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국내 증시가 연초 강세장을 보이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외국인·기관과 개인투자자가 장세를 정반대로 예측하는 모습을 보였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3.46포인트(0.14%) 상승한 2492.10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0.33포인트(0.05%) 오른 718.29으로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2521.86까지 2500선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외국인·기관과 개인투자자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지수 상승에, 개인투자자는 지수 하락에 베팅했다.

개인이 지난 6일 가장 많이 순매수한 국내 ETF는 KODEX200선물인버스2X(2배 레버리지)와 KODEX인버스, KODEX코스닥150선물 인버스 순이었다. 반면 외국인은 KODEX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기관도 KODEX레버리지와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를 선택했다.

그럼에도 종가기준으로 지난해 11월 26일(2520.36)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는 이날 장중 2500을 넘기며 '1월 효과(증시가 1월에 강세장을 보이는 현상)'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초 코스피 지수 상승은 그간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던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새해 첫 거래일인 2일을 제외하고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매수했다. 외국인 ▲3일 2844억원 ▲6일 3765억원 ▲7일 1573억원을 매수해 총 8182억원가량을 사들였다.

외국인의 주요 투자 대상은 3일과 6일에는 대형 반도체주였으나, 7일에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5' 개막과 함께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 6일 9.84% 급등한 SK하이닉스는 이날 개장 후 1%대의 강세를 보이며 '20만닉스'를 회복했지만 종가는 19만5000원(-2.40%)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도 0.89% 하락한 5만54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의 발언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3일과 6일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4488억원, 삼성전자를 1312억원 순매수했지만 젠슨 황이 CES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인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메모리 반도체를 탑재했다"고 밝히면서 경쟁사인 두 기업의 주가도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증권가는 당분간 국내 시장의 상승을 전망하는 분위기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젠슨 황 CEO 연설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외국인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그동안의 과도한 낙폭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고, 외국인도 매도를 멈춘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중위권 운용사, 리브랜딩 효과 미미… "차별화 상품 필요"

ETF 점유율 확대 위해 마케팅 강화
"한계 있어… 독창적 운용 등이 핵심"

〈중소형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운용사	2024년 1월 3일	2025년 1월 3일
KB자산운용	7.90%	7.60%
한국투자신탁운용	4.90%	7.50%
신한자산운용	2.30%	3.20%
한화자산운용	2.40%	2.00%
키움투자자산운용	2.20%	2.10%
NH아문디자산운용	1.60%	0.90%
하나자산운용	0.30%	0.80%
우리자산운용	0.20%	0.20%

/금융투자협회

중위권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리브랜딩을 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브랜드 변경보다는 차별화된 운용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TF 시장은 지난해 규모가 170조원을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고, 올해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권 자산 운용사들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다. 하나자산운용이 지난해 4월 가장 먼저 기존 'KTOP'을 '1Q'로 바꾼데 이어 7월에 KB자산운용이 'KBSTAR'를 'RISE'로, 한화자산운용이 'ARIRANG'을 'PLUS'로 변경했다. 지난해 9월 우리자산운용이 'WOORI'를 'WON'으로 교체하며 리브랜딩 대열에 합류했다. 이달에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기존 'KOSEF'에서 'KIWOOM'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자산 운용사들은 리브랜딩과 함께 광고와 판촉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KB자산운용은 광고선전비로 37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 10억원에 비해 27억원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한화자산운용은 광고선전비로 전년동기(12억원) 대비 16억원 증가한 28억원을 썼다. 하나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역시 광고선전비를 각각 2억6000만원에서 11억원,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산 운용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지난 3일 기준 KB자산운용의 ETF 시장 점유율은 7.6%로 지난해 초 7.9%에서 0.3%포인트 감소했고, 한화자산운용은 2.4%에서 2%로 0.4%포인트 줄었다. 우리자산운용은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하나자산운용만이 0.5%포인트 증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리브랜딩만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명 변경은 투자자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운용 전략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해외 투자와 월 배당 상품,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채권 및 레버리지 상품에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위권 운용사들이 단순히 마케팅 경쟁에만 집중해서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며 "마케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연초부터 테슬라에 3억달러 투자… AI 주도주는 분산

해외주식 Click

상위 종목 순매수액 절반 '테슬라'
엔비디아서 브로드컴·팔란티어 분산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새해에도 테슬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유지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주도주는 엔비디아에서 팔란티어, 브로드컴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새해 들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2배 불 셰어즈' ETF로 약 1억7559만달러(2554억원)를 사들였다. 순매수 2위 종목도 테슬라로 약 1억4244만달러(2072억원)를 담았다.

서학개미들은 연초부터 테슬라에만 3억달러 넘게 투자한 셈이다. 동일 기간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총 순매수금액이 5억9845만달러(8706억원)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테슬라 관련 종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를 해외주식 최선호주로 뽑고 "트럼프 정부 2기에서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전망되고, 로보택시 시행 주가 확대되며 자율주행 모멘텀 반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테슬라는 '매그니피센트 7(M7)' 종목 중 낮은 스코어를 기록 중"이라며 "테슬라의 12개월 선행(12MF)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2%로 시장 평균 21.8%를 하회하고, M7 종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12MF 주가수익비율(PER)은 113배로 시장 평균 22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주당순이익(EPS) 연평균 성장률(CAGR)을 반영한 주가멀티플인 주가수익성장비율(PEG)도 4.7배로 시장 1.6배보다 높다는 평가다. 비교 기업 중 가장 높은 애플은 2.2배 수준이다.

다만 김 연구원은 "테슬라의 신형 모델 출시, 자율 주행, 로보 택시 상용화 등 수익에 직접적인 요인이 나타나면 주가 멀티플(투자수익배수)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올해 캘리포니아, 텍사스주에 우선 출시될 예정이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인 'FSD V13'은 연말 출시 예정이다.

더불어 서학개미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한 투심도 유지하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X' ETF를 1억240만달러(1490억원) 순매수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지난해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AI 대표주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브로드컴(4043만달러)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에는 팔란티어에 12억3956만달러(1조8030억원)를 투자하면서 엔비디아(11억1105만달러)보다 높은 선호를 보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8兆 돌파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25% 늘어…DC·IRP '성과'
자체 RA·제휴로 투자옵션 제공 예정

증권업계가 퇴직연금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8조원을 돌파했다.

7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8조1257억원으로 2023년 말 6조4999억원 대비 25% 늘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각각 30.5%, 45.1%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지난해 말 기준 NH투자증권 퇴직연금 DC거래법인은 2108개로, 2023년 말 대비 41% 증가한 618개 법인이 퇴직연금 신규사업자로 진입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다양한 채권 상품도 모바일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730여개 ETF(상장지수펀드)에도 실시간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부문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금융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향후에도 자체 RA 전략뿐 아니라 외부 RA 전문 업체와의 전략 제휴를 통해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경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부사장은 "NH투자증권은 업계 최고 수준의 퇴직연금 모바일 플랫폼과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제공하며 퇴직연금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